

전남도,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속도'

합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우선 협상자 선정
인구유입 600명·연평균 200억원 경제 효과 등 축산업 발전 기여

전남도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합평 유치 등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3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우선 협상대상으로 합평군이 선정됐다. 이는 전남도와 합평군이 30여차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유치활동을 한 데 따른 결과다. 유치 효과는 이전비용 9000억원(추정)에 달하고, 직원 183명 등 인구유입 600명이 예상된다. 이는 연 평균 200

억원 지역경제 기여와 전남 축산업 발전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전부지로 편입된 농가가 취업을 희망할 경우 축산업 진입 지원 등에 대해 축산과학원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도 전남도는 선제 대응조치로 전국 최초로 1만1000농가에 냉방시설·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등 긴급 지원, 가축 폐사가 전년보다 4% 감소(전국 7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우 송아지 브랜드 사업도 전국 최초

로 시행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브랜드 '으뜸송아지' 61마리를 경매한 결과, 암송아지 406만원, 수송아지 388만원(최고가 수송아지 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일반 송아지보다 67만~100만원 비싼 가격이다. 전남도는 올해 5000두(30억원)를 선발하고, 2023년에는 5만두를 선발해 연 300억원의 추가 소득을 올리고, 전남 송아지 품질도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우브랜드는 최근 경진대회에서 순한 한우 3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과 명품인증 2년 연속 획득했고, 녹색한우도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 전남 한우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한우 등 소 생산비 절감위한 조사료생산사업도 4만8000ha로 전국의 32%(전국 1위)를 재배하고 있고, 악취없는 농촌 환경조성을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258호(전국 2위), 친환경축산물 인증 1422호(전국 2위), 전남형 녹색축산 농장 141호를 지정해 환경친화형 축산을 추진하고 있다. 배운한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생산농가 자립기반 확대, 유통망 다변화, 가축분뇨 처리, 가축 생산비절감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축산농가도 농촌의 일원으로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축산물 품질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장흥군 연말 인사 지역 공직사회 '술렁' 6급 이하 하위직 불만도

장흥군이 지난 연말 단행한 인사를 두고 지역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장흥군은 1일자로 실·과·소장과 읍·면장(간부급)에 대해 대대적인 물갈이(순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6월말 들어가는 사무관급 공로자를 대비하기 위해 사무관 선별을 포함 연쇄적인 승진인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인사가 나오자 6급 이하 상당수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현행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상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올해 10월 이후부터는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변경되는데 따른 것으로 이번 정기인사에서 기대했던 사무관급 이하 승진(선발)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다. 특히 전임 단체인 재직기간에 '근무성적 평정' 관리를 잘해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들고 상위층에 있던 6급 팀장급 대상자들이 1월 1일 이후 신입 단계에서 부여하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하위층으로 밀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흥군 인사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전국 지자체들의 근무평정이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을 삼아 6개월 근무평정 실적이 감안되지 않는 인사제도를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근무평정시기(4월말과 10월말)를 고려하다보니 이번 승진인사를 다가올 상반기로 미루게 됐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관계자들이 전통 재현 가마에서 조선 시대 방식으로 구워낸 분청사기 작품을 꺼내고 있다. <고흥군 제공>

500년 전 분청사기 재현 '세상 밖으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250점 조선시대 방식 구워내
마 모습으로 재현됐다. 이 가마에서 조선 시대 전통방식 그대로 소나무 장작을 이용해 1천280도가 넘는 고온에서 48시간 동안 불을 지펴 분청사기 달항아리와 실생활 분청사기 등 250점을 구웠다. 도예 전문가의 작품과 분청문화박물관 도예강좌 수강생 작품 위주로 소성(燒成)됐다. 일주일간의 가마 식히기 기간을 거친 후 지난 28일 분청사기를 가마에서 꺼내는 요출(窯出)행사를 했다. 분청문화박물관 관계자는 "전통가마는 최고의 명품 분청사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작업과정이 번거롭고 성공 확률이 30~40%에 불과하다"며 "전통 재현 가마는 전문가 자문과 사전 문제점 검토로 성공 확률을 80~90%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분청문화박물관은 전통 재현 가마의 소성과 요출을 계기로 고흥 분청사기 전통을 이어 가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발굴과 복원사업을 지속해서 펼치기로 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고흥 분청사기 전통 재현 가마에서 조선 시대 방식으로 구워낸 분청사기 작품을 꺼내고 있다. <고흥군 제공>

전북도청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공급

공공기관 확산 물꼬 틀 듯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구내식당은 다품목 소량을 소비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100% 품목을 생산하기가 어려운 점까지 고려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공공기관, 군부대 등 공동급식소에 지역산 먹거리 제공을 표방하는 푸드플랜(푸드시스템) 완성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는 이번 도청 구내식당 로컬푸드 공급을 계기로 향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14시군 구내식당은 물론 다양한 공공기관에 지역산 로컬푸드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영암군 대불산단 '청년친화형산단' 선정

2024년까지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3113억원 투입
영암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694개 산단(국가 44, 일반 650)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한 2019년도 청년친화형 선도 산업단지 공모 사업에서 대불국가산단이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청년 친화형 산단은 산업단지를 젊은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지난 3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뤄졌다. 산업통상부는 이번에 선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별 구체적인 사업수요 등을 반영해 산단환경개선펀드(국비 2500억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국비 400억원), 산업단지편의시설 확충(국비 350억원)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로 지정된 8개 산단 중에서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대불국가산단지는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총 3113억원(국비 2089억, 지방비 701억, 민간 323억)의 재정 및 민자를 투입해 2024년까지 국가지원 사업으로 대불산단을 청년이 돌아오는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영암군은 유관기관과 함께 근로·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이 행복할 산업단지 조성분야로 청중(청년·중년) 공감 문화재생산업 외 6개 사업, 혁신공간 확충을 통한 융복합기술 창업생태계 조성분야로 노후공장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창업공간 조성 외 4개 사업을 추진했다. 또 기업혁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HSE 연구센터 구축 외 7개사업, 산업단지 스마트 인프라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외 2개 사업 등 총 4개분야 23개 사업을 발굴했다. /영암=전봉환 기자 jbh@kwangju.co.kr

강진군, 다문화 교류·소통 공간 공모사업 유치

강진군은 최근 전남도로부터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공모사업을 유치했다. 이 사업은 전남 22개 시군 중 7개 시군에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나아가 다문화가족 간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여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 간 실질적인 소통·융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다문화 결혼이주여성들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강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이나 활동 시간 외에는 자조활동이나 공동육아 등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커피를 마시면 사랑이 시작된다!

채널A 주말특별기획

커피야, 부탁해

용준형 김민영 채서진 이태리 길은혜 김남매 류해린 맹세창 한재우 이태운 이광진 장곡수 김동준 우정환 윤소이 김경 | 극본 서보라 이아연 연출 박수철

매주 토·일 저녁 7시 40분